

제49호·2017년 11월 22일

항만·물류연구본부 | 국제물류연구실
총괄·감수 | 이 성 우 본부장

KMI 극동러시아 동향 리'포'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물류동향

러시아, APEC에서 유라시아와의 파트너십 확대 추진 의사 밝혀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다낭에서 열린 APEC 회의에서 대유라시아파트너십 (Greater Eurasian Partnership)(이하 GEP) 구상의 개념을 강력하게 호소했음
- GEP는 상하이 협력기구, ASEAN,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같이 러시아가 제안하고 주도하는 경제 연합의 하나임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GEP는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과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토대로 제안한 것으로 다른 참가자들에게 열려 있는 융통성 있는 현대 프로젝트"라고 소개함

<대유라시아파트너십 구상>



자료: www.russia-briefing.com

- GEP를 통한 교통, 통신 및 에너지 등 인프라의 포괄적인 개발은 효과적인 통합의 토대가 될 것이며, 현재 러시아 극동의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또한 러시아는 복합궤 철도 노선과 가스 및 석유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음



- 푸틴 대통령은 "경제와 시장을 연계할 수 있는 양자 간 또는 다자간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한 개발 의지를 밝힘
- "프로젝트 중에서도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그리고 사할린-홋카이도를 묶는 에너지 수퍼링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러시아의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을 아태지역 경제 네트워크에 통합 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 지역의 투자 매력을 높이고 러시아 기업을 국제 생산 체인으로 통합하기 위한 모든 조치가 포함된다."고 강조함

자료: <https://www.russia-briefing.com/news/russia-push-greater-eurasian-partnership-concept-apec.html/>
(검색일: 2017년11월 16일 검색.)

공영덕 연구원

051-797-4778, ydkong6053@kmi.re.kr



극동지역 선도개발구역 투자 규모 지속적으로 증가

- 캄차트카 선도개발구역 입주기업인 “캄차트스카야 멜니차”(Kamchatskaya Melynitsa) 사(社)는 사일로 창고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했음
 - “캄차트스카야 멜니차”(Kamchatskaya Melynitsa) 사(社)의 부대표인 올가 블로히나 씨는 총 11억 8백만 루블을 1단계는 창고업, 2단계는 밀가루 생산 사업으로 총 두 단계로 나누어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힘
-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러시아 총리가 “니콜라예프스크” 선도개발구역을 확장시키는 법령에 서명했음
 - “Polyanka” 부지가 니콜라예프스크 선도개발구역으로 포함되면서 금광회사인 “NGK Resourse” 사(社)가 입주기업으로 지정되었음
 - 이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된 금액은 3억 62백만 루블이며, 투자될 금액은 총 22억 루블임
 - 총 340개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임
- 극동지역 선도개발구역에 대한 투자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 중임
 - 알렉산드르 갈루쉬카 극동개발부 장관은 극동지역이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으로 지정 되면서 투자가 늘어나 클러스터가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 현대식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으며,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졌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음
 -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 제도 내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총 563개이며, 총 투자 금액은 2조 4천억 루블이며, 7만 2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음

자료: <https://minvr.ru/press-center/news/10454/>(검색일: 2017년11월 21일 검색.)

김엄지 연구원

051-797-4776, umjikim@kmi.re.kr